

2024년 7월 24일 설교자 회의

본 문 : 신명기 17장 14-20절

제 목 :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대 지 : 1. 이스라엘의 왕
2. 낮아지신 우리 왕

한문장 :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맡겨진 이들을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왕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왕들은 자신이 최고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대리인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이스라엘에 함께 거하는 형제 속에 일원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형제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대리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통치자들이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크던 작던 누군가를 섬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낮은 위치에서 섬길 수 있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조심하며 우리 마음속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통치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이며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본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신명기 25장 17-19절

제 목 : 너의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대 지 : 1. 아말렉을 기억하라

2.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문장 : 죄와 악을 철저히 기억하며 제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1

17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며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강조합니다. 이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처음으로 전쟁을 치룬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사건입니다.(출17:8-16) 그들은 행군으로 지친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악한 자들을 노렸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최초의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행위는 비열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이들을 향해 창과 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보면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를 요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준비되어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약자를 구분하고 보호해야하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 당시 제네바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뛰어난 전술이라 평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 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백성을 기습공격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말렉의 악했던 행위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하나님은 19절에서 이제 가나안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되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날을 이제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0인역에서는 19절의 기억을 '이름'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정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무엘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삼상 15:2-3)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후 실행 되어질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까? 죄와 유혹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악한것들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지워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습니다. **죄와 타협지 않고, 철저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 문 : 신명기 30장 1-10절

제 목 :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대 지 : 1. 진정한 회개
2. 순종의 여정

한문장 :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이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킬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용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야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며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어 용서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2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들은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돌아온 자를 기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1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더 복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복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